

페텔 전성시대



6일 영암 F1 서킷에서 열린 2013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에 출전한 머신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다. 3일간 15만8000여명의 관객들이 대회장을 찾아 꿈의 레이싱을 즐겼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은 약속의 땅”... 독주체제 가속 월드챔피언 예약

F1코리아그랑프리 폐막

세이프티카 2차례 발생에도 단독질주... 최근 대회 4연승

웨버 머신 화재로 중도 하차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 TOP5			
이름	소속	기록	
1	제바스티안 페텔 레드불	1시간 43분 13초 701	
2	키미 라이코넨 로터스	1시간 43분 17초 925(+4.2초)	
3	로망 그로장	1시간 43분 18초 628(+4.9초)	
4	니코 헨켈버그 자우버	1시간 43분 37초 815(+24.1초)	
5	루이스 해밀턴 메르세데스	1시간 43분 38초 956(+25.2초)	

이번은 없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이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추월이 금지되는 세이프티카 상황이 2차례나 벌어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던 페텔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차분하게 경주를 마무리하며 우승컵을 품어 안았다. 페텔은 6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

서 열린 이 대회 결승 레이스에서 5.615km의 서킷 55바퀴(총길이 308.63km)를 1시간43분13초 701에 달려 우승을 차지했다.

2위 키미 라이코넨(핀란드·로터스)보다 4.2초 빨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른 페텔은 3년 연속 코리아 그랑프리의 황제 자리를 지키며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갔다.

또 지난해 벨기에 대회부터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그랑프리까지 최근 4연승을 내달렸다. 우승으로 포인트 25점을 보낸 페텔은 시즌 랭킹 포인트 272점으로 시즌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며, 이번 시즌 우승에 한 발 다가갔다. 페텔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F1 챔피언이 될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63년의 F1 역사에서 4년 연속 챔피언을 차지한 드라이버는 지금까지 미하엘 슈마허(독일), 후안 마누엘 판지오(아르헨티나) 등 두 명뿐이다.

슈마허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연속 우승했고 판지오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4년 연속 왕좌를 지켰다.

이날 경기 전까지 랭킹 포인트에서 60점 뒤진 페텔을 추격하던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는 이날 6위로 포인트 8점을 보태는 데 그쳐 페텔과의 간격은 77점으로 더 벌어졌다.

페텔의 한국대회 우승으로 남은 대회에서 알론소의 역전이 더욱 힘들어져 페텔의 시즌 우승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퀵라인(에션) 1위로 폴포지션을 차지한 페텔은 출발과 함께 치고 나가 압도적인 기량을



6일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 레이스 도중 사고로 탈락한 레드불 마크 웨버(호주)의 머신을 옮기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뿔났다. 첫 바퀴에서 2위이던 로망 그로장(프랑스·로터스)과의 간격을 2초 이상 벌렸다. 25바퀴를 돌았을 때는 차이를 5.5초로 크게 벌려 독주 체제를 굳혔다.

하지만 31바퀴째에는 세르히오 페레스(멕시코·맥라렌)의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가 터져 자기 머신의 프런트엔딩을 망가뜨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잔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2차 사고의 위험이 생겼으나 드라이버들이 이를 피해 더 큰 사고는 생기지 않았다.

잔해를 치우는 동안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령됐다.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머신들은 추월할 수 없지만 앞 차와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단독 선

두를 달리고 있던 페텔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또 37랩에서 첫 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이 끝나자마자 다시 서킷 위에 사고가 발생, 2번째 세이프티카 상황이 시작됐다.

페텔의 동료 마크 웨버(호주)가 모는 머신이 에드리아 수틸(독일·포스인디아)의 차와 접촉 사고가 났고, 잠시 후 웨버의 머신에 화재가 발생했다. 잔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2차 사고의 위험이 생겼으나 드라이버들이 이를 피해 더 큰 사고는 생기지 않았다. 잔해를 치우는 동안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령됐다.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머신들은 추월할 수 없지만 앞 차와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단독 선



시즌 14번째 포뮬러원 레이스인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바스티안 페텔이 삼페인 사위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혼자만의 힘 아니다, 팀원 덕분”

우승한 페텔

“혼자만의 힘 아니었다. 같이 활약해준 팀원들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

시상대에 오른 레드불팀의 제바스티안 페텔(26·독일)은 3년 연속 F1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를 팀원들에게 돌렸다.

이번 대회는 결코 페텔에게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31바퀴째에서 세르히오 페레스(멕시코·맥라렌)의 노즈와 프런트엔딩이 부서졌고, 41바퀴째에는 동료인 마크 웨버(호주)의 머신에 화재가 발생하며 2번이나 세이프티카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에션 1위로 1순위로 출발해 2

위와의 간격을 5초까지 벌렸던 페텔에게는 앞차와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세이프티카 상황이 달갑지 않은 않았다.

하지만 페텔은 말했다. 세이프티카 상황이 해소된 41바퀴째에서 다시 속력을 내더니 2위 키미 라이코넨(핀란드·로터스)과의 간격을 4초 이상까지 벌리며 1시간 43분13초701로 압도적인 레이스를 마쳤다.

페텔은 “두번의 피스트롬에서 시간을 줄여준 팀원들의 활약에 감사한다”며 “라이코넨이 무섭게 뒤에서 따라오며 추격해 한때 예를 먹었지만 한국에서 또다시 우승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호남 골... 골... 광주FC 3연승 질주

광주 FC가 첫 3연승에 성공했다.

광주 FC가 6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경찰축구단과의 K리그 챌린지 27라운드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넣은 김호남의 활약 속에 3-1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광주는 창단 3년 만에 첫 3연승의 기록을 세웠다.

전반전 양팀은 슈팅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펼쳤다. 광주가 전반 7분에 나온 루시오의 매서운 중거리 슈팅을 시작으로 골사냥에 나섰다. 전반 35분 루시오의 벱라 같은 프리킥이 상대 골키퍼 유현의 손에 걸리며 아쉬움을 삼킨 광주는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마철준의 헤딩

슛까지 골대를 비껴나면서 땅을 쳤다.

몇 차례 기회를 놓친 광주는 결국 전반 42분 경찰 안성빈에게 골을 내주면서 0-1로 전반전을 마감했다.

후반 12분 남기길 감독대행이 안동혁을 대신해 임선영을 투입하며 공격에 세밀함을 더했다. 임선영을 그라운드를 밟은 지 9분 만에 골맛을 보며 대공세의 시작을 알렸다.

후반 23분 코너킥 찬스에서 김호남이 키커로 나서 공을 띄웠고, 문전으로 쇄도하던 임선영이 마철준을 맞고 흐른 공을 잡아 오른쪽으로 경찰의 골문을 갈랐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광주는

실세없는 공세로 경찰 수비진을 흔들었다.

후반 28분 김호남의 득점포가 가동됐다. 오른쪽에서 치고 오르면 이광진이 중앙으로 공을 밀어줬고 김호남이 달려나오는 골키퍼를 피해 미끄러지며 슈팅을 해 역전골을 연축했다.

후반 38분 동점골을 만든 임선영이 세기골의 도우미로 나섰다. 이번에도 김호남의 오른쪽발이 가동됐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수비수를 따돌린 임선영이 뒤쪽 중앙에서 침투하던 김호남에게 공을 넘겼고, 발리슛과 함께 광주의 세 번째 골이 완성됐다.

광주는 남은 후반전을 실점없이 막으며 3-1로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광주의 새로운 골잡이로 급부상한 김호남은 시즌 5·6호골을 연달아 쏘아올리며 3연승의 주역이 됐다. /김용희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 양궁 세계선수권 금빛 과녁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벨렉비치에서 열린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단체 결승전에서 벨라루스(세계랭킹 17위)를 212-206으로 꺾었다. 한국은 직전 세계선수권대회이던 2011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 여자부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여자 대표팀은 토리노 대회에서 개인전 노메달, 단체전 동메달로 1985년 서울대회 이후 26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노골드를 기록했다. /연철뉴스